



사회의 담론 줄기를 형성한 10년간 출판 아우라

우리 사회에서 '레드 콤플렉스'가 한창 회자되던 시대가 있었다. 1997년 6월에 아홉 명의 필자들이 '레드 콤플렉스'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풀어 쓴 《레드 콤플렉스》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다. 삼인은 이 책으로 출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6년 9월에 창립한 삼인은 사명에 담긴 '난세를 헤쳐 나가는 사람, 우리름을 받는 사람'의 의미를 잊지 않고 사회의 담론을 책으로 담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출

삼인

판사명 삼인(三仁)은 중국 은나라 말기에 있었던 세 사람의 어진 사람, 즉 미자(微子), 기자(箕子), 비간(比干)을 일컫는다. 홍승권 부사장은 특별한 편집방향이 없었는데도 자연스레 삼인의 출판 칼라가 칠해졌다고 말하지만, 10여 년의 출판편집경력을 가진 최인수 편집장이 삼인 사람이 된 이유를 들어보면, 삼인의 아우라를 짐작할 수 있다.

“삼인에서 나온 책을 봤을 때 느낌이 남달랐어요.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다다랐을 때에는 안락이라는 전체주의에 갇혀 자신의 생각 내지는 삶에 대한 고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집중하기 쉽잖아요. 그 안락이라는 전체주의의 틀을 깨워주는 책을 삼인이 출간하고 있더라고요.”

삼인의 곁이 만져지는 150여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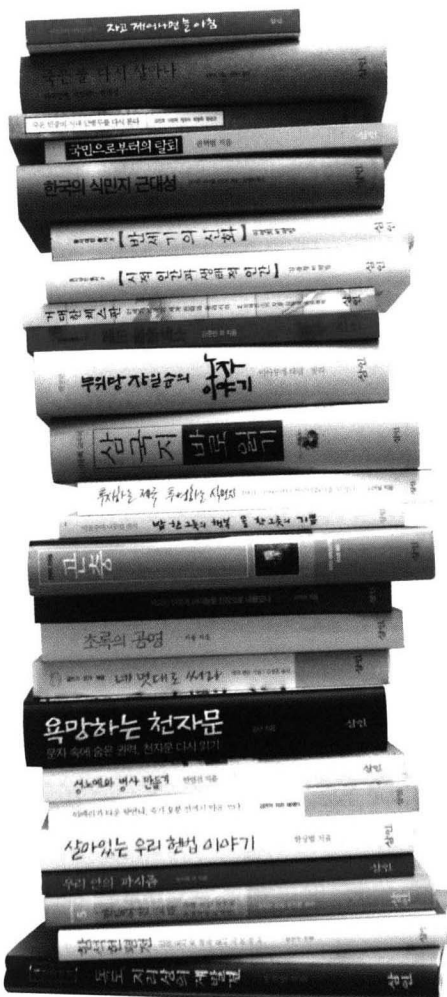
10년 동안 150여 권을 발행해 온 책들은 한 권 한 권마다 삼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레드 콤플렉스》는 논문 형식으로 구성하면 독자들에게 읽히기에 제한적이라 인물 비평 시리즈로 기획한 게 반향이 컸고, 그 후속작인 《보수주의자들》도 논란이 됐던 책이다. 보수주의자로 자처하거나 평가받는 동시대 인물 10명의 삶과 사상, 주장에 대한 비평을 통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있는지 물음으로써 혼란의 와중에 있는 한국보수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모색한 저서이다. 홍 부사장은 “이런 책들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 이념을 짚어보는 계기가 돼 보람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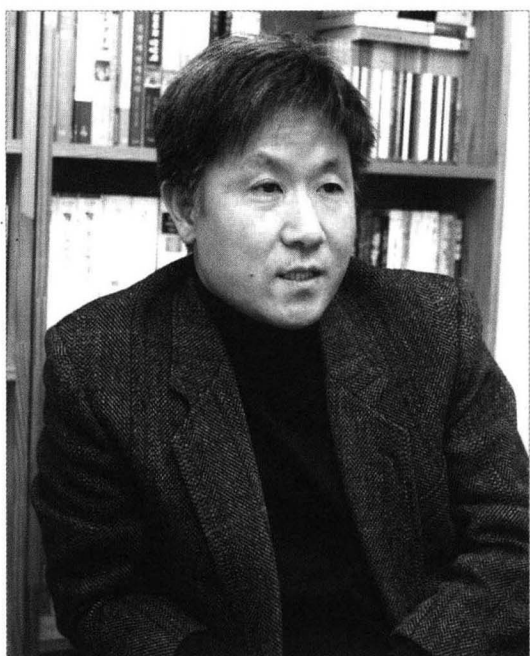
1997년 9월에 계간지 <당대비평>을 창간하게 되면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낸 삼인의 역할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중 《우리안의 파시즘》은 대학생들에게 회자됐던 책 중 하나다. 이 책은 <당대비평>에서 ‘우리 안의 파시즘’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리즈 특집으로 다뤘는데, 형식적 민주화가 겉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여도 우리의 의식 심층에서는 여전히 내면화된 규율 권력인 일상적 파시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포착한 책이다.

민족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어 왔던 여러 거짓들의 정체를 밝힌 리영희 선생의 《반세기 신화》, <녹색평론> 발행인이며 영문과 교수인 김종철 씨가 들려주는 인간, 흙, 상상력에 관한 에세이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부모인 문재린, 김신묵의 회고록을 묶은 《기린잡이와 고만네의 꿈》 등 삼인만의 특별한 곁이 만져지는 책들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어느 책이나 다 그렇겠지만 홍 부사장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책으로 《기린잡이와 고만네의 꿈》을 들었다. 이 책은 기획한 지 3년 만에 출간됐다. 비록 독자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했지만 근대현대사의 중요한 자료를 묶어냈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

홍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예수에게 도를 묻다》는 작가이자 번역가인 관





홍승권 부사장은 2년간 대기업 셀러리맨으로 일하다 1991년 현암사에서 영업자로 일하면서 출판과 연을 맺게 됐다. 출판인 10년 세월을 겪으면서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경영자와 편집부 직원들의 소통"이라 한다. 경영자가 편집자를 배려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여 년의 출판편집기획 경력을 가진 최인수 편집장은 "내가 몰랐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각인시켜 줄 때 편집자로서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

옥 이현주 목사가 마르코 복음서를 한 구절 한 구절 풀어 읽은 기록이다. 이처럼 삼인에서는 종교관련 책들, 예를 들면 유일신 신앙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담은 책 《이름 없는 하느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기독교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등은 보수주의 신교를 교육받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책들인데, 홍 부사장은 이런 책들은 "기존의 사상을 거머쥐고 있는 권력의 틀을 깨는 역할을 책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는 최 편집장의 적극적인 기획에 의해 출판됐다. 부산의 대표적 집창촌인 이른바 '완월동'이나 티켓다방 등에서 한때 성매매업을 직업적으로 했던 여성들 10명의 수기와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성매매 업소를 탈출한 여성들이 부산의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인 '살림'이 운영하는 쉼터에 거주하면서 4개월간 16회에 걸친 글쓰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다.

홍 부사장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예상을 빚나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책이다. 최 편집장은 "우리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처절한 음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빛을 못본다"는 생각으로 책을 내게 됐다고 한다. 10년 넘게 편집자로서 일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각인시켜 줄 때' 편집자로서 감사함을 느낀다.

"삼인에서 안하던 짓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판화가 이철수의 《깨어나면 늘 아침》은 삼인의 분위기를 아는 독자라면 고개를 가웃거렸을 법한 책이다. 그러나 2만 5천 부 이상 팔린 《밥 한 그릇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의 후속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책이다.

늘 한결 같은 꾸준함으로

최 편집장은 올 봄에 나올 《세계사 교과서의 오류》(가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그가 삼인에 합류하면서 기획한 책으로 꽤 의미가 깊은 책이다.

"중·고등학교 사회 및 세계사 교과서가 주로 서구중심이잖아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정도이고요. 교과서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거나 기술되었다 하더라도 오류가 많아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를 모시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최 편집장은 교과서를 개정하는 데 삼인의 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인의 올해 계획은 늘 한결 같은 꾸준함이다. 홍 부사장은 “이왕이면 매출이 좀 나아져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살림살이가 되길 바란다”면서 소박한 웃음을 짓는다.

올해 삼인에서 나올 책 중 주목받을 책은 폴리처상을 받은 《히로히토 평전》(가제)이다. 특히 성과 젠더문제에 관심을 갖고 출판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계속될 것이다. 최 편집장은 “사회학과 역사학 분야에 페미니즘 연구가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삼인에서 출간된 《아메리카 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나 《위험한 여성》들처럼 젠더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책을 낸다”는 홍 부사장의 말 속에 진정한 출판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김민**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